

예전적 실천이 윤리적 실천에 미치는 영향*

문화량 (고려신학대학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예배와 신앙 형성
- III. 실천의 형성적인 힘
 - 1.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적 지식
 - 2. 신앙 형성에 있어서의 아비투스(habitus)의 힘
- IV. 개인의 신앙과 사회 참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예배 요소: 성찬
- V. 예배가 어떻게 개인의 윤리적 태도를 변혁시킬 수 있는가? 실제적 고찰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08>

* 본 논문은 신원하 교수 은퇴 논문집, 『나의 약함들을 자랑하리니』에 수록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The Influence of Liturgical Practice on the Ethical Conduct

Associate Prof., Moon, Hwarang (Korea Theological Seminary)

One of the significant challenges currently facing the Korean church is the loss of public trust. Despite experiencing rapid growth, the Korean church has failed to nurture faithful believers, and various scandals have led unbelievers to become concerned about the church. In light of this reality, many scholars have realized that the imparting knowledge and learning does not automatically connect to righteous practices. They have developed an interest in how orthodox faith can lead to orthodox practice within society.

Liturgical theologians in the United States who earlier faced similar challenges have recogniz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liturgical studies and Christian ethics.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ey have argued that worship within the church should be connected to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society. This argument is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worship, which suggests that the laws of prayer should not only shape the laws of faith but also become the laws of action.

This paper will explore how worship and liturgical practices influence the formation of a believer's faith. This study will examine how worship can shape the believer's holy habits and lead to behavioral changes from a liturgical, theological perspective.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argue how elements within worship can ignite genuine concern for society and a desire for structural change within an individual's inner self.

Key words: Liturgy, Christian Ethics, Faith Formation, Social Participation, Lord's Supper, Elements of Worship, Lex Agendi

I. 들어가는 말

예배와 기독교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학문으로서의 예전학과 기독교 윤리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예배학을 일반적으로 실천신학의 한 분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예전학이 실천신학, 조직신학과는 별개의 독특하면서도 독립된 분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실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간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다. 이런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북미의 예전학자들은 예배학과 기독교 윤리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예배와 기독교 윤리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Liturgy and Moral Self*)와 같은 북미의 저명한 예전학자들, 예를 들면 돈 샐리어스(Don E. Saliers), 고든 래스롭(Gordon Lathrop), 바이런 앤더슨(E. Byron Anderson), 브루스 모릴(Bruce T. Morrill) 등이 참여한 주요 저서가 나왔을 뿐 아니라, 예전학을 개설한 학교들의 박사 과정의 커리큘럼에 “Liturgy and Christian Ethics”와 같은 과목명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²⁾

북미의 주요 예전 학자들이 예배와 윤리의 연결성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당 안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스캔들과 사건 사고에

1) E. Byron Anderson and Bruce T. Morrill ed., *Liturgy and the Moral Self: Humanity at Full Stretch Before God*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2) 미국의 경우 예전학(Liturgical Studies) 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노트르담 대학(Notre Dame University), 게릿 신학교(Garrett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가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등의 학교의 커리큘럼에 “예전과 기독교 윤리” 과목이 개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었고, 이것이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공적 신뢰(public trust)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른 교리가 바른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지식의 습득이 자동적으로 현상에서의 실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북미의 교회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주요 언론과 미디어의 보도를 보면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과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과 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구조와 실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의 차원으로 연결시키며,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직면하고 사회의 변혁에 대한 마음을 생기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예전 신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개인 윤리 뿐 아니라, 사회 윤리적 차원과도 연결이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필자는 먼저 예배가 어떻게 개인의 신앙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예배가 어떻게 형성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 개인 윤리 뿐 아니라 사회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배의 어떠한 요소들이 개인의 신앙 형성과 사회 속에서의 윤리적 실천과 연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예배와 윤리는 서로 긴밀한 연결 관계에 있으며, 균형 잡힌 예배의 요소들과 그것들의 실천이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것이 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의 변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II. 예배와 신앙 형성

예배학 서적에 자주 나오는 경구로 “Lex orandi, lex credendi”가 있다. 원래의 문장은 “Legem credendi lex statuat supplicandi”로 “기도의 법칙”(law of prayer)이 “믿음의 법칙”(law of belief)이라는 뜻이다. 반펠라 기우스주의에 대항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강조점인,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로, 5세기 교황 레오 1세의 비서였던 프로스퍼(Prosper of Aquitaine[435-442])가 했던 말이다.³⁾ 이후에는 예배와 관련된 의미로 발전하여 현재는 “예배의 환경에서 교리가 형성되었다”라는 의미의 명제로 사용된다.⁴⁾

위의 명제를 자세히 고찰해보면 예배와 신앙 형성의 관계를 압축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 명제는 예배 현장에서 교리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이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예배 중에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정립했다. 이후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신학은 교의화 되었다.⁵⁾ 즉 예배의 환경에서 교리가 나왔고 결국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법칙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예배의 현장은 신앙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예배 현장이 아무리 신앙 형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믿음의 법칙인 교의와 고백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예

3) Paul de Clerck, “Lex orandi, lex credendi: Original Sense and Historical Avatars of an Equivocal Adage”, *Studia Liturgica* 24(1994), 180, 189.

4) E. Byron Anderson, *Worship and Christian Identit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3), 24-29.

5) Duncan B. Forrester, *Theology and Practice* (London: Epworth Press, 1990), 74.

를 들면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교의도 예배의 현장에서 나왔다. 신자들은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교의로 정리하기 시작했다.⁶⁾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교의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현장에서 나오는 신학 사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법칙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바른 교의와 고백은 예배를 바르게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기도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은 역동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그것은 교리가 과도하게 예배를 지배할 때 예배는 활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⁷⁾ 예를 들어 개신교는 예전의 유익한 부분인 상징(symbol)과 의식(rite)을 과도하게 도려내 버렸다. 로마 가톨릭의 과도한 예전 준수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마치 서양 속담에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던지지 마십시오)와 같은 말처럼 말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자들이 예배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것이 옳은가, 혹은 옳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논쟁적인 태도로 타 전통이나 다양한 예배 실천을 비난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배학자들은 신앙고백과 신학적 숙고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회중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예배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고, 성경적이면서도 활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까 한다.

6) Geoffrey Wainwright, *Dox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237-239.

7) 예배학자 프랭클린 세글러는 “교리는 결코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만약 사람이 교리 안에서만 안전감을 찾는다면 그는 예배를 통해 받는, 살아 있는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한다. Franklin M. Segler, *Christia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Nashville: Broadman Press, 1967), 58.

근래의 예배학자들은 이런 예배와 신앙 형성의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바른 예배와 신앙이 행동의 법칙(*lex agendi*)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최고의 예전학자에게 수여하는 베라카 상(Berakah Award)을 수상했으며 수십 년 동안 예배학계를 이끌었던 예배학자 돈 샐리어스(Don Saliers)를 포함한 현대의 주요 예전학자들은 예배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동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배 속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상 속에서의 신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개인적 차원의 영성 추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예배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일 뿐 아니라 행동의 법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가 단순히 개인의 신앙 형성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윤리적 삶과 사회의 변혁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적인 힘을 담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실천의 형성적인 힘

예배 실천이 과연 신자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을 행동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예전 신학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8) Don E. Saliers, *Worship as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187.

9) 문시영, “교회의 재발견: 부흥운동을 넘어 대안적 공동체로,” 『기독교사회윤리』 12(2006), 10-13.

지식의 축적이 자동적으로 개인의 변화와 사회 속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 형성에 있어서 지성과 인식 능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은 예배 참여와 예전의 실천이 줄 수 있는 신앙 형성의 가능성을 간과하게 한다. 사람은 지정을 가진 전인이다. 지식의 유무 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적인 영역이 실천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때 개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의 형성적인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함 속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의미는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행위자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 메시지는 행위자의 마음속에 결단을 요구한다. 행위자는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 메시지에 동의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개혁주의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몸은 마치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생과 같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습관(habitus)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¹⁰⁾

스미스의 언급에는 두 가지 핵심 사상이 녹아져 있다. 첫째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명시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지만, 동시에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암시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람의 형성에는 습관(habitus)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10) James K. A. Smith, *Imagining the Kingdom: How Worship Works* (Grand Rapids: Baker, 2013), 97.

1.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적 지식

예배학과 예전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해야만 예배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며 예배를 배운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에 대한 신앙 서적들을 독파한 후에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자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운다. 찬송도 마찬가지다. 찬송을 잘 부르기 위해 학원에 다닌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법을 배운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의 요소와 순서의 의미를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암묵적으로 배운다.

그러므로 참여와 실천은 신자의 신앙 형성의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한 예배 속 다양한 예전들과 순서들을 행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이것은 몸에 새겨진 지식이 된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각 순서의 의미와 메시지들은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가고 성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형성한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작용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특징을 형성한 부분도 있다. 그것이 바로 암묵적 지식의 영역이다. 마이클 폴라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있다.”¹¹⁾ 흔히 우리는 무언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식을 가졌다고 여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어떤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도 이해는 존재한다. 주요한 지성적 과정 안에 포함된 전제는 명확한 수칙(precepts)의 형태로 공식화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¹²⁾

11) 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어린아이에게 두 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무리 어른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말로는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지식을 전수할 수 없다. 자전거를 타는 법은 실제 자전거를 타면서, 그 행위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 여러 번 넘어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지식은 아이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다.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호흡할 것인지, 어떻게 물에 뜰 수 있는지를 아무리 지식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지식의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접 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아이는 어떻게 물을 먹지 않고서 호흡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력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몸에 새겨진 지식이 된 것이다.

플라니의 견해는 예전 신학, 특별히 의례학과 밀접한 접점을 가진다. 인간의 지식은 단순히 개념의 주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몸의 참여 자체가 지식의 습득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특정한 일에 참여하며, 체현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은 인격적 지식을 얻는다.

예전의 행함도 이와 비슷하다. 예전의 형성적인 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앎을 증진시켜주고, 내 마음속에 변화를 요청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전을 행함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 암묵적 지식에 대한 논증은 예전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예전 신학의 학문적 증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12) Michael Polanyi, *Science, Faith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42.

2. 신앙 형성에 있어서의 아비투스(habitus)의 힘

개신교 신자들, 특히 장로교 전통에 선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전”(liturgy)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예전을 로마 가톨릭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예배도 다양한 예전과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일어나기, 찬송 부르기, 손 들기, 무릎 꿇기, 읽기 등이 모든 것이 다 의례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예배 중에 행할 때, 여기에 내포된 내용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즉 반복적으로 예전과 의례를 행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을 형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예전의 형성적인 힘과 중요성을 비난하는 입장에서 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예전적 실천이 단순히 의미 없는 행동이거나, 행위의 반복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사람을 습관화시켜서,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주장하기도 한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사람을 습관화시켜서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기도 한다.

실천은 단순히 의미 없는 행동이거나, 행위의 반복이 아니다. 실천은 이론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더 나아가 그 자체가 형성력을 가지고 있다. 예전을 반복하면서 얻는 힘은, 매주일 그것이 반복되므로, 그 반복적 과정을 통해 깊은 숙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데 있다. 실천 속에 의미와 지혜가 존재한다.¹³⁾

우리는 아비투스(habitus)라는 단어의 뜻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립 부르디외(Pierre Bourdieu)에 의하면, “아비투스”는 일종의 “두 번째 본성으로 내제화된 것”(internalized as a second nature)이다. 그는 사람이 반복된 행동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기계적으로 움직

13) Don, S. Browning,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7.

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반사적 자유”(reflexive freedom of subjects)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¹⁴⁾ 몸의 실천과 의례를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이 훈련을 받아 일종의 반응 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아비투스(habitus)는 마음이 떠난 자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보다 깊고 새로운 지식으로 심오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실천의 반복을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과 연관시켜 보는 것이다. 한 번의 실천은 마치 거미가 거미줄 하나를 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 세 번 행위가 반복되면서 거미는 그물망과 같은 거미줄을 친다. 그리고 거미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범위와 지평은 넓어진다. 예전적 행위의 반복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모든 요소와 순서, 그리고 그것들에 내포된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매주 반복되는 예배는 참여자로 하여금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 익숙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욱 깊은 이해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마이클 폴라니와 연관시켜 설명한다면, 모든 지식에는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있다고 볼 때, 예전적 실천과 반복을 통해서도 행위자는 다양한 지식을 얻고, 결국 이것을 학자들은 의례적 지식(ritual knowledge)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배에 참여 하면서, 예전과 의례들을 행하면서, 참여자는 끊임없이 거기에 내포된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이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일어난다.

의례적 지식은 현대 과학의 발전, 특히 두뇌 연구를 통해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로저 스페리가 연구팀과 함께 심한 간질(epilepsy)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뇌량(corpus callosum)을 절단한 실험을 한 것이

14) Pierre Bourdieu, *The Logic of Practice*, trans. Richard Ni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53.

대표적인 사례이다. 뇌량이 손상되면 좌뇌와 우뇌가 정보를 교환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뇌량이 절단된 환자에게 정면을 바라보게 하며 스크린의 어느 한쪽에 단어나 그림을 순간적으로 제시하였다. 뇌량이 손상되어 한 쪽 뇌의 반구로 입력된 정보가 다른 쪽 뇌의 반구로 건너가지 못하는 상태였다. 실험자가 환자에게 방금 본 것을 가려내라고 하자 왼손으로는 우측 반구가 본 것을, 오른손으로는 왼쪽 반구가 본 것을 정확히 가려냈다.¹⁵⁾ 이 실험에서 환자는 자신이 선택한 근거를 말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몸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예전과 의례의 행함 속에도 지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IV. 개인의 신앙과 사회 참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예배 요소: 성찬

지금까지 예배와 예전, 그리고 의례들이 어떻게 개인의 신앙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예배가 개인의 신앙 형성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자의 눈을 사회 윤리와 변혁적 삶으로 돌리게 할 수 있을까?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바른 신앙(orthodoxy)이 어떻게 하면 바른 실천(orthopraxis)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최근 예배학자들은 “성찬”이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배 요소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성찬을 떠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죄 사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미 개혁주의 교단의 대표적인 예배학자인 존 윌트블릿(John Witvliet)은 성경에 나타난 성찬의 의미를 12가지로 설명한다. 그것은 언약, 하나님(그리스도)의 임재, 감사, 용서, 천국 잔치를 기대함, 유월절/속죄의 표지, 계시(현현), 영적 영양 공급,

15) James W. Kalat, *Biological Psycholog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2003), 424.

교제(몸의 연합), 윤리적 헌신의 표지, 기억, 선포이다.¹⁶⁾ 이 중에 예배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바로 “윤리적 헌신의 표지”이다. 성찬이 기독교 윤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찬을 하기 이전에 성찬이 있음을 공고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면한다. 성찬 예식 중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할 것을 권고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살피도록 권고한다는 측면에서 성찬은 기독교 윤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회의 권징 중 하나인 수찬 정지도 역시 기독교 윤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징계를 받은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곧 옆에 앉은 신자와의 화목을 의미함을 깨닫는다. 나아가, 성찬을 통해서 신자는 교회 안의 가난한 자들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최근 성찬과 사회 윤리의 연관성을 다루는 예전학자의 글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대표적인 책으로 윌리엄 카바나(William T. Cavanaugh)의 『고문과 성찬』(*Torture and Eucharist*)이 있다.¹⁷⁾ 이 책은 쿠데타로 칠레의 대통령이 된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집권 시기에 국민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던 상황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실정을 반복하는 정치인들을 종교적으로 파문하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신학적 고찰을 다룬다. 이 책에서 카바나는 성찬의 시행 및 성찬과 관련된 권징이 성도들의 윤리적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구조 변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카바나만의 독창적인 통찰은 아니다. 일찍이 칼뱅은 수찬 정지

16) 문화랑, 『예배학 지도 그리기』 (서울: 이레서원, 2020), 142-154.

17) William T. Cavanaugh, *Torture and Eucharist: Theology, Politics, and the Body of Christ*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8).

라는 권징을 통해 성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찬식 때 구제 헌금을 하여 모든 재정으로 사회 가운데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인 디아코니아를 시행하였다.¹⁸⁾ 그러나 근래의 연구들을 통해서 학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구체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¹⁹⁾ 개인의 성화와 복음 전도를 넘어서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structural evil)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문제에 대해 예언자적 메시지(prophetic message)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일반적으로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강조하며 중요시하는 내용이 있다. 하나님 초월성(transcendence of God), 개인의 신앙심과 헌신, 전도 중심적인 예배 등이다. 또한 세속 정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며, 신앙고백과 종교개혁 전통의 지식에 충실한 것이 정통 신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해왔다. 즉 바른 실천(orthopraxis)보다 바른 믿음(orthopistis)에 초점을 둔 것이다.²¹⁾ 그러나 북미의 저명한 예배학자인 돈 샐리어스는 “예배가 인간 존재의 현실과 분리될 때, 우리는 그 예배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 예배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적 삶에 대한 가르침 및 실천과 연결된다. 이 예배는 세상 가운데 사는 예배자를 발전시키고, 그에게 방향성

18) Robert M. Kingdon, “Calvin and the Family: The Work of the Consistory in Geneva”, in *Calvin's Work in Geneva*, ed. R. D.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96.

19) Bernd Wannewetsch, *Political Worship: Ethics for Christian Citize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7.

20) 이창호,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183-185.

21) 여기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동춘, “사회적 칼빈주의와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공성,” 『기독교사회윤리』 32(2015), 160-165.

을 제시하기 위한 언어와 능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²²⁾ 교회가 사람들의 실존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주의 교회들은 보수 교회가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사회 참여와 변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³⁾ 진보적 교회들은 하나님의 내재성(immanence of God)을 강조한다. 사회의 구조적 악과 약한 자들에 대한 억압을 지적하면서 사회 정의와 변화를 추구해 왔다. 보수 교회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진보측은 사회 참여와 변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일에는 바른 목소리를 냈지만, 신학과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민중의 힘과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이데올로기적인 의도로 성경을 곡해한다고 지적한다.

보수 교회들과 진보 교회들의 주장에는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들의 강점들을 융합한 진일보한 사상이 없을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온전히 조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가 바로 성찬이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동료 신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 문제에도 실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 즉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이 세상을 변혁하는 차원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함을 느낀다. 즉 성찬은 예배학의 중요한 명제처럼, 예배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으로 연결되고, 믿음의 법칙이 결국 행동의 법칙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있어

22) Don E. Saliers, *Worship and Spirituality* (Memphis: Order of St. Luke Publishing, 1996), 20.

23) Nam-Dong Suh, "Toward a Theology of Han," in *Minjung Theology* (New York: Orbis Books, 1983), 55-69.

서 중요한 예배 요소가 되는 것이다.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훈련을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거룩한 연습이 된다. 물론 횟수의 빈도가 마법적인 효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자주 성찬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요소와 순서, 내용 속에 풍성한 성찬의 메시지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습관적 예식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예배의 전체 구조와 요소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예전과 기도의 내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V. 예배가 어떻게 개인의 윤리적 태도를 변혁시킬 수 있는가? 실제적 고찰

예배 속에는 다양한 예배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들은 예배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적절한 순서로 배치되면서 성도들에게 내포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북미의 저명한 루터파 예배학자인 고든 래스롭은 이것을 “병치”(juxtaposition)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는 말씀 선포와 성례가 예배의 중심 요소(central thing)라고 말한다. 이 핵심 요소를 전후로 예배의 여러 요소들, 예를 들면 예배로의 부름, 대표기도, 찬송, 봉헌 강복 선언 등이 병치되어 있다. 이 병치구조가 형성적 효과(formative effect)를 불러온다는 것이다.²⁴⁾ 래스롭의 견해는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킨다는 선한 의도 속에서 간과되어 왔던 예배 각 요소의 중요성과 이것들의 배치에 따른 신앙 형성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흔히들 성도들은 “설교를 들었으면 예배를 드렸

24) Gordon W. Lathrop, *Holy Things: A Liturg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51-52.

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신자의 신앙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설교중심적인 예배는 신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자리에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순서들이 있어야 한다. 예배 속 다양한 순서와 요소들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교에 대한 강조와 관심에 비해, 그것들은 때로는 로마 가톨릭적 혹은 의식적이라고 오해를 받아왔다. 예전적 요소들의 결여와 예배 속 각 요소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성도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예배 속에서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새기는 훈련의 결여로 이어지게 되었다.

성찬뿐만 아니라 예배 속 다양한 순서들은 참여자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자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한 번 생각해 보자. 공예배 가운데 온 회중이 일어나서 십계명을 낭독한다. 예전신학적으로 볼 때, 예배의 자리에서 십계명을 함께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계명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 영역 속에 자신의 양심을 위치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²⁵⁾ 그리고 그 계명들을 매주 반복적으로 접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다짐과 훈련을 하게 된다.

예배 가운데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의 순서는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세상을 향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와 모순들을 발견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한다.²⁶⁾ 예전적인 중보기도와

25) Roy Rappaport,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42-143.

26) 베른트 베넨베치는 “분명하게 제시된 예전적 역할과 함께, 확립된 예배 언어 및 계발된

는 차별화된 교회사적으로 독특한 한국적 통성기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다 뜨겁게 하여 보다 전인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진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연습(exercise of faith)이 되어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 공적 차원에 대한 지평의 확장에 기여한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불리는 찬양도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형성에 큰 역할을 감당한다. 찬양에 담겨 있는 성경적, 신학적 메시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른 신앙을 형성하게 하며, 그것을 담고 있는 멜로디와 곡조, 그리고 비트는 가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16세기의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중 한 사람인 마르틴 루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찬송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봉헌 순서도 신앙 형성적 효과를 가진다. 봉헌은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우리 편에서의 신앙고백적 차원을 가짐을 그 순서를 통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깨닫게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인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차원에 우리가 동참해야 함을 깨닫는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에게는 디아코니아의 정신으로 꽃을 피웠고, 현재 한국 교회는 세상 그 어떤 단체보다 세상을 섬기는 데 훨씬 더 헌신하고 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파송 및 복의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함을 깨닫게 한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과 고백을 배웠다면, 세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형태의 중보 기도를 통해” 청중은 윤리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능력을 통해 사회의 변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Bernd Wannewetsch, *Political Worship: Ethics for Christian Citizens*, 76을 참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배의 세 번째 차원인 삶의 예배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VI. 나가는 말

예배는 신자의 신앙을 형성한다. 예배 속 각 순서들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말씀과 성찬을 중심으로 병치되면서 참여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그 메시지는 매주 반복된 예배 실천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결국 이것은 개인의 윤리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성찬과 중보기도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윤리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예배 속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설교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전적 전통이 결여된 한국적 상황 속에서, 작금의 예배가 진정 성도들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눈을 어둡고 소외된 이들과 사회의 구조적 변혁에 이어지도록 효과적인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예배 중 들은 말씀을 예배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것들이 줄 수 있는 형성적인 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예배의 각 요소와 순서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것이 배치되면서 독특한 의미를 형성하며, 매주 예배가 반복되면서 이것들이 형성적인 힘을 발휘해서 성도들의 신앙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예배를 기획하며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춘. “사회적 칼빈주의와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공성.” 「기독교사회윤리」 32 (2015), 147-185.
- 문시영. “교회의 재발견: 부흥운동을 넘어 대안적 공동체로.” 「기독교사회윤리」 12(2006), 7-28.
- 문화랑. 『예배학 지도 그리기』. 서울: 이레서원, 2020.
- 이창호.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141-189.
- Anderson, E. Byron and Bruce T. Morrill eds. *Liturgy and the Moral Self: Humanity at Full Stretch Before God*.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8.
- Anderson, E. Byron, *Worship and Christian Identit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3.
- Bourdieu, Pierre. *The Logic of Practice*, trans. Richard Ni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Browning, Don, S.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Cavanaugh, William T. *Torture and Eucharist: Theology, Politics, and the Body of Christ*.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98.
- de Clerck, Paul. “Lex orandi, lex credendi: Original Sense and Historical Avatars of an Equivocal Adage.” *Studia Liturgica* 24(1994), 178-200.
- Forrester, Duncan B. *Theology and Practice*. London: Epworth Press, 1990.
- Kalat, James W. *Biological Psychology*.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2003.
- Kingdon, Robert M. “Calvin and the Family: The Work of the Consistory in Geneva.” In *Calvin's Work in Geneva*, edited by R. D. Gamble, 93-106. New York: Garland, 1992.
- Lathrop, Gordon W. *Holy Things: A Liturg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 M. Segler, Franklin. *Christia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Nashville:

- Broadman Press, 1967.
- Polanyi, Michael,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 _____. *Science, Faith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Rappaport, Roy. *Ritual and Religion in the Making of Hum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Saliers, Don E. *Worship as Theology: Foretaste of Glory Divin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_____. *Worship and Spirituality*. Memphis: Order of St. Luke Publishing, 1996.
- Smith, James K. A. *Imagining the Kingdom: How Worship Works*. Grand Rapids: Baker, 2013.
- Suh, Nam-Dong. "Toward a Theology of Han," in *Minjung Theology*. New York: Orbis Books, 1983.
- Wainwright, Geoffrey. *Dox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Wannenwetsch, Bernd. *Political Worship: Ethics for Christian Citize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18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 국 문 초 록 •

최근 한국 교회가 직면한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공적 신뢰의 상실일 것이다.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는 신실한 신자를 양성하는 데 실패했으며, 여러 스캔들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현실을 통해 여러 학자들은 지식의 주입과 학습이 자동적으로 바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학이 사회 속에서의 바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먼저 체험한 미국의 여러 예배학자들은 예배학과 기독교 윤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간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사회의 구조적 변혁으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예배학의 중요한 공리인 예배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본 논고에서는 예배와 예전적 실천이 어떻게 신자의 신앙을 형성하는지를 고찰한 후, 예배 실천이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예전신학적 차원에서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예배 속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에 사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구조적 변화를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논증할 것이다.

주제어: 예전, 기독교 윤리, 신앙 형성, 사회 참여, 성찬, 예배 요소, 렉스 아젠다
